



르 빈

기생충 홍보관을 찾아

李 舜 鏞

「놀랐어요. 막연히 기생충은 해롭다는 것만 알았었지. 이렇게까지 무서운 것인지는 이곳에 와서 알았어요.」
방과후 지나다 친구와 함께 들어와 이곳을 관람한 B고교 1학년 김제영군의 소감이다.

기생충홍보관이 개관을 한 것은 지난 9월 3일, 한국기생충박멸협회 서울시지부에서 9백 70만원 을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 개관에 이른 것이다.

해화동로타리 강풍빌딩(국민은행 해화동지점) 3층에 위치한 기생충홍보관은 현재 매일 60여명이 관람하고 있으나 앞으로 관람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일반국민에게 기생충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을 보급하며, 각계각층 지도자에 대한 보건교육의 실시를 담당하고 각급학교학생의 실습장으로도 활용될 기생충홍보관에 대한 관계자들의

기대는 실로 큰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80% 이상이 한 종류이상의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고 점차 감염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후진성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민보건에 막심한 피해는 물론 귀중한 생명에까지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기생충홍보관이 개관함으로써 기생충관리대책의 일환으로 기생충퇴치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李賢 서울지부 사무국장은 「종합적인 국민계몽을 위해 기생충홍보관의 내실을 기하며 여전이 허락되는대로 이러한 홍보관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여러곳에 세울계획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5명의 요원이 이곳을 담당하고 있는데 홍보관의 내부는 보건교육 및 전시실, 상담 및 진료실, 시청각실, 검사실, 회의실로 나뉘어져 있다.

전시자료를 살펴보면 기생충에 대한 61점의 육안표본을 비롯해서 현미경표본, 전시사진, 전시도표 등이 보는이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또한 시청각실에는 영사기, 환등기, 녹음기, 촬영기, 슬라이드 등 최신의 장비가 방문자 피교육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상담 및 진료실에서는 관람자들의 기생충질환에 대한 상담을 하며 기생충진료를 실시하는데 이곳에는 현미경 7대

를 비롯해서 고압멸균기, 원심분리기, 가검물 냉장고, 전조기, 전열멸균기 등이 비치되어 있어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기생충에 대한 전화문의와 상담을 하고있어 시간에 쫓기는 이들이나 지방에 있는 이들의 편리를 돌보고 있다.

「기생충질환은 자각증상이 적은데다가 질환 및 병변이 다양하여 실예를 들면 조충, 간디스토마 등은 전문적지식이 절대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있는 분들은 어느 면에서 불려 기생충홍보에 있어 베테랑급입니다.」

자부가 결들인 어느 홍보관요원의 말이다.

또한 이곳에는 각 대학의 기생충교실에 있는 전시자료중 없는 육안표본등도 갖추고 있으며, 보다 일반국민에게 가까이 대할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되어 있다.

기생충홍보관은 앞으로 교육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학교양호교사의 교육과 학생들의 실습장활용을 도모할 것이며, 행정기관과 각단체의 협조로 보건소보건의원, 산업장보건의원, 여성단체, 각종부녀지도요원을 교육하여 기생충박멸의 최일선을 맡아 명실공히 기생충홍보관의 설립취지를 이어나갈 것이다.

〈필자=약업신문 취재부 기자〉